

제30기 해외역사문화탐방 결과보고서

그저 나로서 존재할 수 있었던 몽골에서의 3박 4일



몽골은 내게 어떤 나라였을까?

교과서 속에서는 칭기즈칸의 나라.

하지만 직접 만난 몽골은

광활한 자연과 자신만의 삶의 방식을
지켜온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이었다.



낮선

해방감

울란바토르에 도착한 순간,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설렘보다도 해방감이었다.
익숙한 환경, 반복되는 일상,
끊임없이 요구되는 역할들로부터
잠시 벗어나 있었다.



배움에는 국경이 없었다

몽골 국립과학기술대학교 방문.
언어와 문화는 달랐지만, 배움에 대한 열정만큼은
한국의 학생들과 다르지 않았다.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고 싶은 마음은
국경을 초월해 연결되어 있었다.



ДӨЛМӨРИЙН ГАВЬЯАНЫ
ЛААН ТУГИЙН ОДОНТ
ЭХ УХААН ТЕХНОЛОГИЙН
ИХ СУРГУУЛЬ

ᠳᠥᠯᠮᠥᠷᠢ ᠭᠠᠪᠢᠶᠠᠨ
ᠯᠠᠭ ᠲᠤᠭᠢ ᠣᠳᠣᠨᠲ
ᠡᠬᠡ ᠤᠬᠠᠭ ᠲᠡᠬᠡᠨᠣᠯᠣᠭᠢ
ᠶᠡᠬᠡ ᠰᠤᠷᠭᠠᠭᠣᠯᠢ



음악은 통했다

몽골 전통 공연을 보며 느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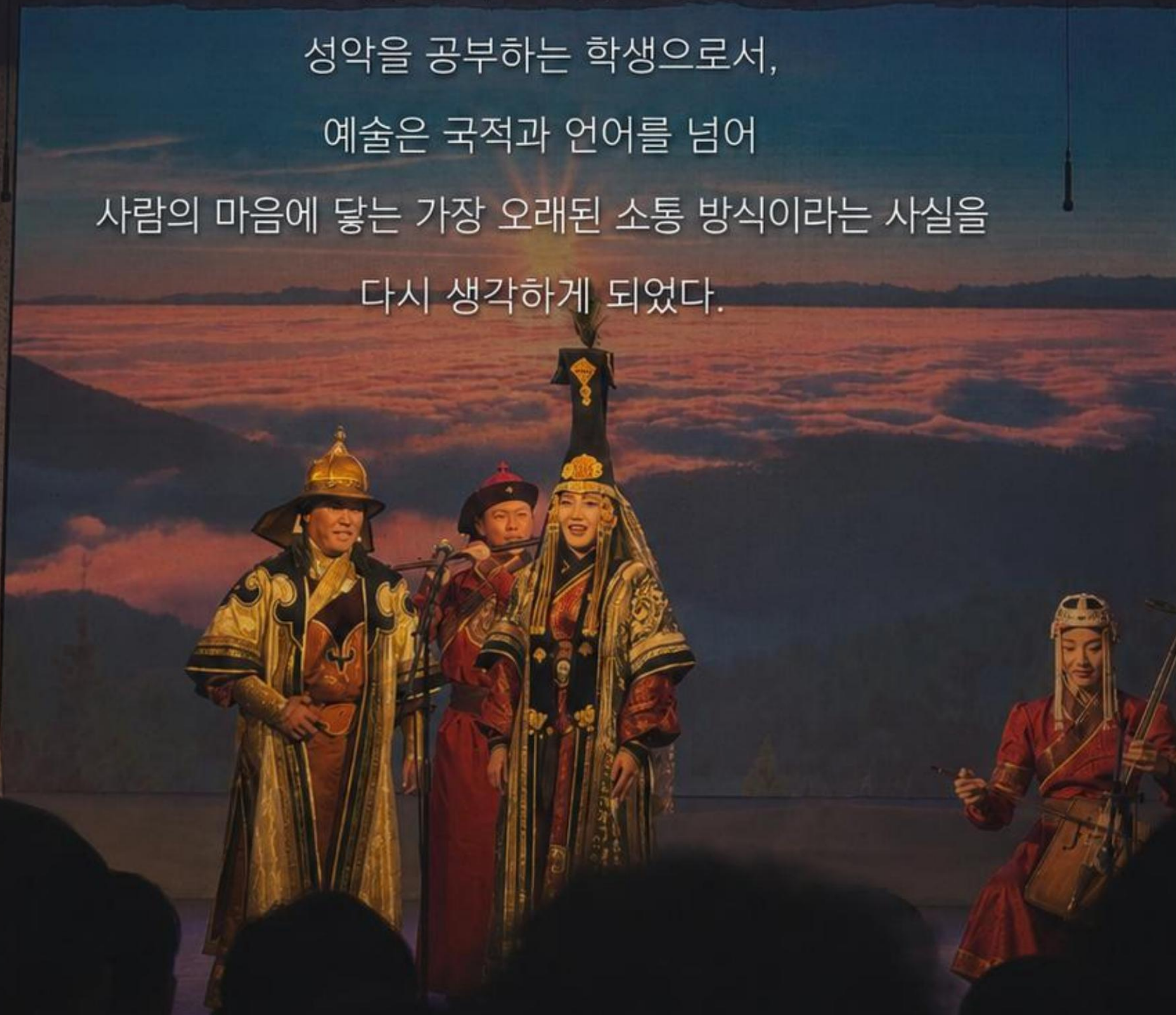
언어는 달라도 음악은 통한다.

성악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예술은 국적과 언어를 넘어

사람의 마음에 닿는 가장 오래된 소통 방식이라는 사실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가장 기억에 남은 것은 박물관도, 유적지도 아니었다.
끝없이 펼쳐진 테를지의 초원이었다.



생애 첫 승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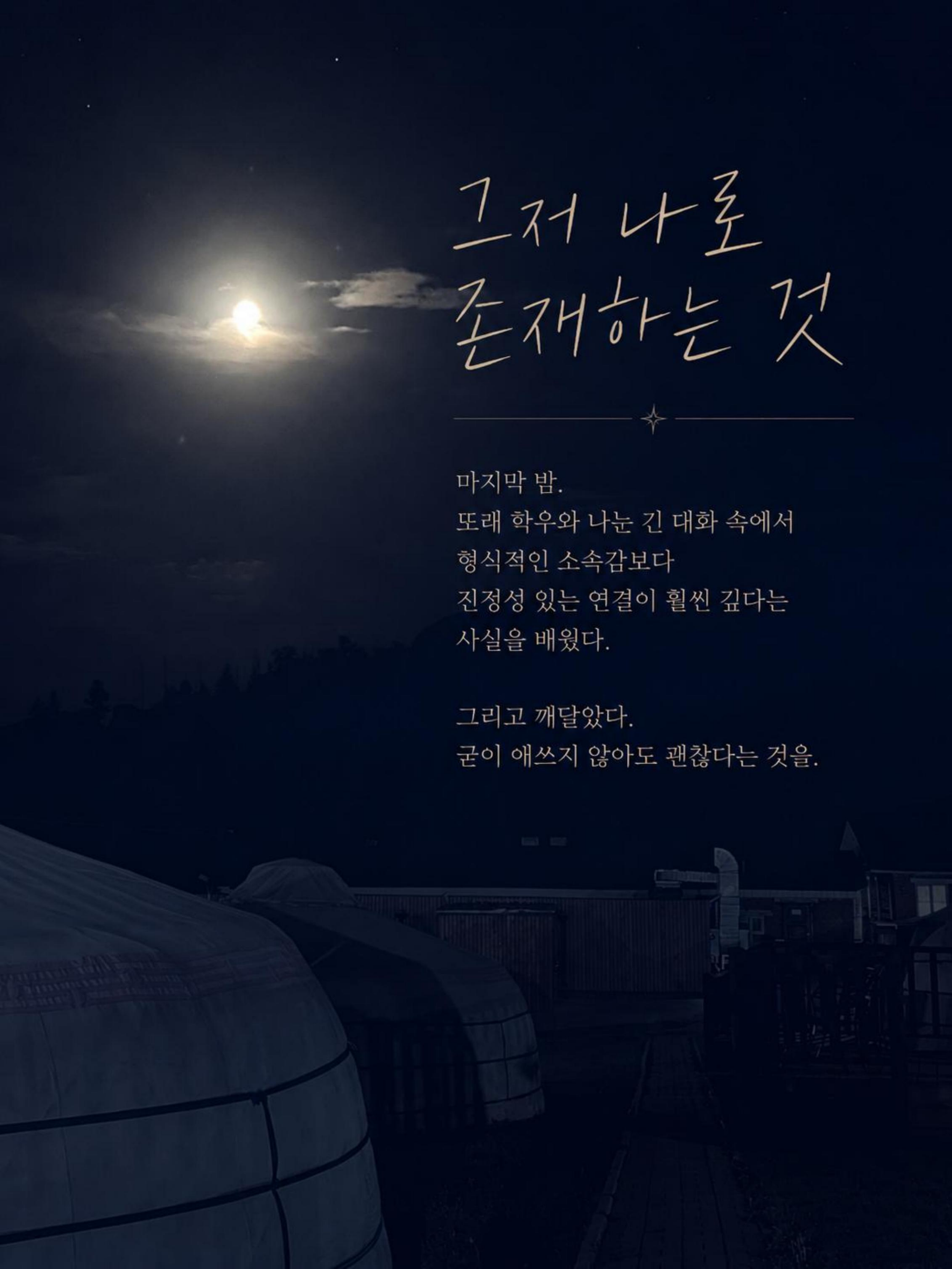
몽골에서 처음 말을 탔다.
천천히 움직이는 말의 등에 올라
끝없는 초원을 바라보는 순간,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에 들어와 있는 듯했다.
지금도 가장 선명하게 기억나는 장면이다.



나는 왜 늘 애쓰고 있었을까?

직장에서는 직장인으로.
사회에서는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관계 속에서는 누군가가 기대하는 역할에 맞추기 위해.
하지만 이번 여행에서는
굳이 나를 증명하려 하지 않았다.





그저 나로 존재하는 것

마지막 밤.
또래 학우와 나눈 긴 대화 속에서
형식적인 소속감보다
진정성 있는 연결이 훨씬 깊다는
사실을 배웠다.

그리고 깨달았다.
굳이 애쓰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어쩌면 내가 찾고 있었던 것은
새로운 풍경이 아니라,
그 풍경 속에서 비로소
마주한 나 자신의 모습이었는지도 모른다.”

광활한 초원은 말해 주는 듯했다.

“그저 너로 존재해도 충분하다.”

이번 여행은 몽골을 이해하는 시간이자,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나 자신을 다시 만나는 시간이었다.